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- WSJ, 블룸버그 등 유료 구독자의 경우 법적 이슈 때문에 원본을 링크로 연결한 점 널리 양해 요청드립니다)
- KOCHAM은 9월 23일 인근으로 이사했습니다. (새 주소지 445 Park Ave. NY NY, 11102, 10th floor)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미 소비자 지출, 인플레 지속 불구 강세 유지
- Bloomberg: 달拉斯 연준 총재, "연방 기준금리 바꿔야한다"
- Bloomberg: 샌프란 연준 총재, "추가 금리 인하 필요하다... 시기는 불분명"

[글로벌 경제]

- The Economist: 글로벌 혁신 국가들은?

[무역 전쟁]

- WSJ: 트럼프, 제약 및 대형 트럭에 관세 부과

[반도체]

- WSJ: 트럼프, 반도체 제조업체 수입 규제 강화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WSJ: 자동차 산업, 미 경제에 경고 신호 보내
- Bloomberg: 아마존, 소비자와 FTC에 25조 불 배상 판결
- WSJ: 코스트코, "회원들에게 쇼핑 시간을 한 시간 더 제공하는 것은 효과적이다"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[미국 경제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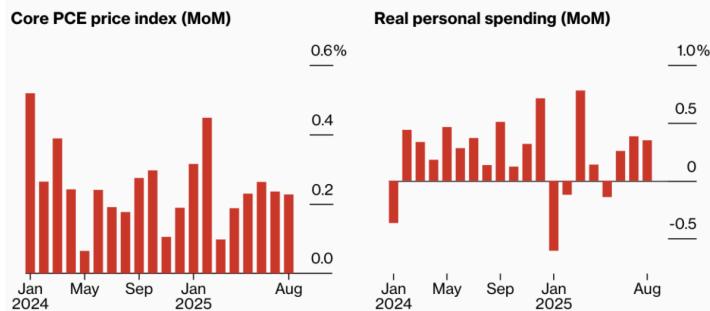
Bloomberg: US Consumer Spending Powers On Even as Inflation Persists

미 소비자 지출, 인플레 지속 불구 강세 유지

- 미국 소비자 지출이 8월에 3개월 연속으로 견고한 증가세를 보였다.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.
- 인플레를 반영한 소비자 지출은 지난달 0.4% 증가했다. 연준의 선호 지표인 핵심 개인 소비지출(PCE) 물가지수는 7월 대비 0.2% 상승했다.
- 이러한 소비 지출의 증가는 이전 분기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는데, 이는 고용 시장이 부진하고 임금 상승폭이 둔화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.
- 고용 시장이 둔화하는 가운데, 소비자들이 이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. 저축률은 올해 최저치인 4.6%로 하락했다.

US Consumer Spending Strong Despite Stubborn Inflation

Personal spending rose in August for a third month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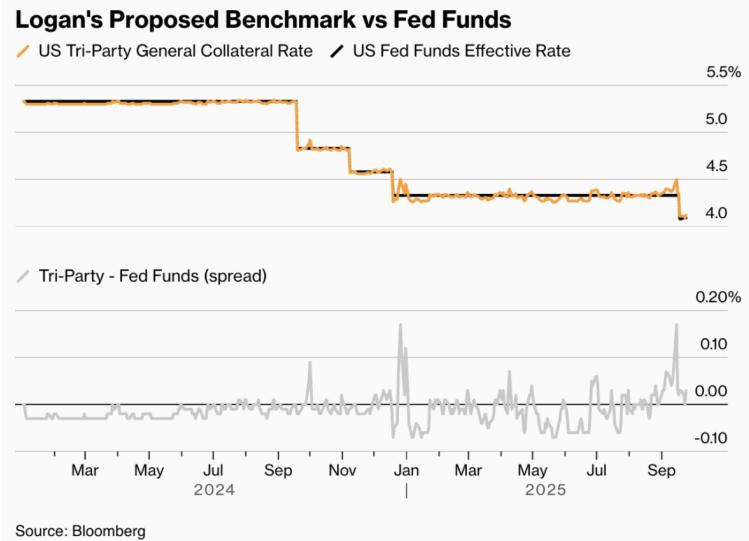


Source: Bureau of Economic Analysis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Dallas Fed President Says Central Bank Should Consider Replacing Its Benchmark Rate
달라스 연준 총재 “연방기준금리 바꿔야 한다”

- 달라스 연준 총재인 Lorie Logan은 금융정책 시행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연방기준금리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미 국채를 담보로 한 견고한 시장과 연계된 하루짜리 금리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.
- 그는 “이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다른 단기금리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 그가 주장하는 이유는 연방기준 금리 목표는 오래됐으며 별로 사용하지 않는 은행 시장과 오버나잇 머니 마켓간의 연결고리가 쉽게 끊길 수 있다고 말했다. 이 같은 시스템을 새롭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.
- 그가 말하는 새로운 기준은 3자 일반 담보금리(TGCR, Tri-Party General Collateral Rate)다. 이는 널리 사용되는 담보부 단기 금융금리(SOFR,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)와 더불어 뉴욕 연준이 감독하는 3가지 하루짜리 환매조건부 채권(overnight repurchase agreements) 관련 금리중 한가지이다.

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Fed's Daly Says More Cuts Likely Needed, Though Timeline Unclear
샌프란 연준 총재, “추가 금리 인하 필요하다...시기는 불분명”

- 샌프란 연준 총재 Mary Daly가 지난달 금리를 0.25%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.
- 이는 고용률과 인플레이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.
- 구체적인 시기는 향후 인플레이션과 고용 관련 지표에 달려있을 것이라 덧붙였는데, 연말까지 남은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.

Bloomberg 기사

[글로벌 경제]

The Economist: The world's most innovative countries
글로벌 혁신 국가들은?

- 독일은 오래 전부터 혁신 강국으로 2024년에 16,700건 이상의 국제 특허를 출원했지만, 최근 글로벌 지적재산권 관련 기구인 WIPO의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.
- 한편, 중국이 처음으로 세계 10대 혁신국에 진입하며 독일을 제쳤다. 이는 중국과 비슷한 소득의 다른 국가 순위와 비교했을 때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.
- WIPO는 R&D 투자, 특히, 수출뿐 아니라 제도적 역량과 기술 도입 수준 등 78 개의 지표를 사용해 국가별 혁신 수준을 측정한다.
- 단순한 경제 규모나 인구 수로 순위가 결정되지 않으며 연구비는 GDP 대비 비율로, 연구자 수는 인구 100만 명당 수치로 계산된다.
- 중국은 규모 면에서도 강점을 가지지만, 효율성과 성과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.
- 특히, 투입 대비 산출 측면에서 중국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였는데, 교육 및 연구(투입) 대비 특허 및 수출(산출)에서 뛰어난 결과물을 보여주었다.
- 한때 'fat tech dragon'이라 불리던 중국은 이제 더 날렵하고 효율적인 혁신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.
- 중국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혁신 활동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.
- 특히 출원과 과학 논문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.
- 벤처 투자의 경우, 거래 규모는 2024년에 7.7% 증가했으나, 거래 건수는 3년 연속 감소하며 집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.
- 벤처 자금은 주로 미국과 인공지능(AI) 분야에 몰리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나 산업으로의 투자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.
- 단일 국가나 분야에 치중된 투자는 기술 발전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. 혁신은 어느 한 곳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가능성의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.

The Economist 기사

[무역 전쟁]

WSJ: Trump to Impose New Tariffs on Pharma, Big Trucks 트럼프, 제약 및 대형 트럭에 관세 부과

-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미국에 제조 공장을 짓지 않은 제약 회사의 의약 품에 100%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발표했다.
- 최근 몇 달간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한 대형 제약 회사들이 미국 내 신규 공장 건설을 발표했고, 12개 이상의 제약회사가 미국에 총 3,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.
- 또한 트럼프는 미국 외부에서 수입되는 대형 트럭에 대해 25%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는데, 이는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.
- 가정용품도 관세 부과 품목에 해당하는데, 주방 캐비닛, 욕실 세면대 등의 제품에는 50%, 천으로 된 가구에는 30%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.
-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관세 품목에 관해 “다른 해외 국가들에 의한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미국의 제조 공정을 보호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WSJ 기사

[반도체]

WSJ: Trump Takes Aim at Chip Makers With New Plan to Throttle Imports 트럼프, 반도체 제조업체 수입 규제 강화

-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대폭 줄이려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.
- 이 계획에는 국내산 반도체와 수입 반도체의 비율을 1:1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는데, 일정 기간 동안 1:1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기업은 관세를 부과 받게 된다.
- 관계자에 따르면,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능력을 향상하고 공급망을 조정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절차 초기에는 유예 조치가 있을 수 있다.

WSJ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WSJ: Auto Industry Is Flashing a Warning Sign on U.S. Economy
자동차 산업, 미 경제에 경고 신호 보내

-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수익이 관세로 인해 압박 받고 있다. 이와 동시에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매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.
- 미국 최대 중고차 판매업체 CarMax는 최근 분기 매출과 이익이 급감했다고 밝혔다. 이 회사의 주가는 20% 폭락을 기록하기도 했다.
- 포드는 이번 주, 베스트셀러 모델인 F-150 픽업트럭의 미판매분을 처분하기 위해 신용 등급이 가장 낮은 구매자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고 전했다.
- 혼다는 아큐라 전기 SUV를 1년 만에 단종한다고 밝혔고, 다른 브랜드들 또한 전기차에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.
- 높은 차량 가격과 높은 금리는 이미 인플레이에 시달리고 고용 시장에 불안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.

WSJ 기사

Bloomberg: Amazon, FTC Reach \$2.5 Billion Deal in Prime Subscription Case
아마존, 소비자와 FTC에 25조불 배상 판결

- 아마존은 연방 공정거래위원회(FTC)가 제기한 소송에서 벌금과 환급금 25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. 그리고 고객들을 위한 Prime 구독 변경 절차를 변경하기로 했다.
- 이 회사는 수백만명의 고객들이 Prime 구독을 하도록 유인하고 취소를 힘들게 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.
- 아마존은 처벌금으로 FTC에 10억불을 지불하고 소비자들에게 15억불의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.
- 한편 이번 판결에 아마존에는 별다른 재정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 아마존은 매 33시간마다 25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. 주가는 이번 판결 발표후에 1%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WSJ: Costco Says Giving Members an Extra Hour to Shop Is Paying Off
코스트코, "회원들에게 쇼핑 시간을 한 시간 더 제공하는 것은 효과적이다"

- 코스트코가 가장 높은 등급의 멤버십을 가진 회원들에게 오전 시간대의 특별 쇼핑 시간을 제공하기 시작했다.
- 총 유료 멤버십 수는 6% 증가해 8,100만 명에 도달했고, 매출은 8% 증가해 86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.
- 이들은 관세와 인플레이, 소비자들의 지출 감소로 인한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코스트코 매장에 진열되는 제품의 종류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.
- 소비자들이 필수품이 아닌 품목은 더욱 신중하게 소비함에 따라 코스트코는 계절 상품을 줄였다.

WSJ 기사

EU, 트럼프 의약품 100% 관세 예고에 "15% 약속해 해당없어"

기사 요약

-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100% 의약품 관세가 유럽산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.
- 지난달 EU·미국 공동성명에 따라 유럽산 의약품·반도체·목재에 대한 관세는 15%를 넘지 않도록 명시됐다.
- EU는 이를 '보험 정책'이라 표현하며, 미국의 교역 파트너 중 유일하게 해당 핵의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.
- 다만 유럽산에만 예외를 두기 위해서는 미국의 별도 행정명령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.

...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